

News

은행권 배당 족쇄 해제... 금융당국 "배당수준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서울경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국내 금융지주사에 대한 배당 제한 권고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 그 근거로 전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스트레스테스트 통과 다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참고할 것을 제시.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9월까지인 점을 고려

카카오뱅크, 중금리 신용대출 상환기간 5→10년으로 확대

한국경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신청 고객에 대해 중신용대출의 대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최대 상환기간은 균등 분할 시 대부분 최대 '5년'이다. 아울러 최근 중금리 신용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내놨다.

지방은행,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속속…대구·전북銀 등 줄줄이 도전장

아이뉴스24

금융위원회는 24일 8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과 전북은행 2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6가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힌 BNK금융 계열사들은 마이데이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쿠온을 선정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

부산은행 라임 증정계에 놀란 하나·경남·농협銀…피해 구제 적극 나서나

아시아투데이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증정계로 정해지자, 제재절차를 앞둔 하나·경남·농협은행 등도 투자자 피해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과 경남은행, 농협은행도 라임 관련 제재 절차를 남겨놓았는데, 이 때문에 제재심보다 분쟁조정 결과가 먼저 나오길 기다리는 모습

'줄줄이 판매 중단' 동양생명, 4세대 실손보험 판매 안한다

이데일리

동양생명이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착한실손보험을 이달 말까지 판매하고 내달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 실손판매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높은 손해율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동양생명의 지난해 실손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12%

KB손보 등 6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중앙일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7개사 중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6개사에 승인을 결정 힘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생명, '탈석탄' 선언 이어 주요 ESG 협약 가입…10년간 20조원 투자

한경비즈니스

삼성생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ESG 채권 등 친환경 금융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TCFD)'와 '지속 가능 보험 원칙(PSI)',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등 ESG 경영을 위한 3개 주요 국제협약에도 가입을 마쳤다.

"서학개미 잡아라"…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대감에 부푼 증권사들

조선비즈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재승인 건이 큰 무리 없이 금융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전망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추진하는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신생 증권사와 기존 증권사에서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